■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61-182.
http://doi.org/10.17948/kcs.2023..100.161

【 특집: 호모 아토포스의 탐색 】

양모(養母)와 생모(生母)*
—제인 정 트렌카의 자기서사와 모녀 관계의 재구성—

장영은(張瑛恩)**

목 차

1. 어머니 찾기와 여성되기의 글쓰기
2. 양부모보다 고귀한 한국 어머니
3. 엄마의 몸이 내 몸으로 변해가는 시간
4. 피의 언어로 쓴 편지

국문초록

제인 정 트렌카는 2003년 미국에서 국가 간 인종 간 입양인의 삶을 직접 이야기한 『피의 언어(The Language of Blood)』를 출간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해서 생후 6개월 무렵에 미국 미네소타의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 미국인으로 성장한 제인 정 트렌카가 『피의 언어』에서 한국인 생모(生母)와 미국인 양모(養母)를 서사의 주체로 등장시켰다는 점에 주목하며, 어머니 찾기와 여성되기(becoming-woman)의 과정으로 제인 정 트렌카의 자기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인 정 트렌카는 한국의 어머니가 미국의 딸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영어를 모르는 생모에게 답장을 쓰는 것으로 한국의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일기에 가까운 편지를 쓰면서 제인 정 트렌카는 자신과 언니를 입양해 키우는 미국의 양부모보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훨씬 고귀하다는 믿음을 무의식적으로 가지며 수정적인(revisionary) 관계를 설정했다. 성인이 되어 한국에서 생모를 직접 만난 후 자신의 외가가 양반 출신이었음을 확인한 제인 정 트렌카는 양반 가문에 남아 있었던 가부장제의 폐습이야말로 어머니의 삶을 망친 가장 큰 원인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1388)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초빙교수.

이었음을 알게 된다. 딸들을 입양 보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어머니 앞에서 제인 정 트렌카는 자신이 미국에서 겪은 성폭력, 인종 차별, 자살 시도, 우울증에 대해 고백할 수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은 점차 생모의 고통에 공감하게 된다. 헤어진 딸들과 재회 후 어머니는 뇌종양으로 위독해졌고, 제인 정 트렌카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어머니의 몸과 삶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제인 정 트렌카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한국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던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의 삶을 글로 썼다. 동시에 자신을 입양해 키웠고 오랜 세월 긴장과 애증의 관계를 형성했던 미국 어머니에게도 편지로 서로 다른 몸을 가진 모녀 사이에 극복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전달했다. 생모와 양모 두 어머니를 어렵게 이해하게 된 제인 정 트렌카는 해외 입양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다루며 저항적인 글쓰기를 시도했다. 제인 정 트렌카의 자전적 글쓰기에서 모녀서사의 문학적 함의와 정치적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주제어: 제인 정 트렌카, 『피의 언어』, 해외 입양, 인종 간 입양, 자기서사, 모녀서사.

친엄마를 알고 사는 너희 기분은 어떤데?

—제인 정 트렌카[1)]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향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임시적인 대답을 해도 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은 고향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움직이는 고향이나 적어도 대체 고향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장 아메리[2)]

1. 어머니 찾기와 여성되기의 글쓰기

제인 정 트렌카는 2003년 미국에서 국가 간 인종 간 입양인의 삶을 직접 기록한 자기서사 『피의 언어(The Language of Blood)』를 출간했다. 한국에서 출생해서 생후 6개월 무렵에 미국 미네소타의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

1) 제인 정 트렌카, 송재평 옮김, 『피의 언어』, 와이겔리, 2005, 53면.(이하 작가 이름과 면수만 표기)
2) 장 아메리, 안미현 옮김, 『죄와 속죄의 저편—정복당한 사람이 극복을 위한 시도』, 길, 2012, 100-101면.

미국인으로 성장한 제인 정 트렌카가 영어로 쓴 『피의 언어』는 2005년에 한국에서 번역되었다. 한국어 번역본에서 작가는 자신의 책이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인의 집단적 경험의 일부로 읽혀지기를 바란다."[3]는 말을 덧붙였다. 작가의 의도처럼 해외 입양인의 자기서사가 한국인의 집단적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한국문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제인 정 트렌카가 『피의 언어』에서 한국인 생모(生母)와 미국인 양모(養母)를 서사의 주체로 등장시켰다는 점에 주목하며, 어머니 찾기와 여성되기(becoming-woman)의 과정으로 제인 정 트렌카의 자기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어머니를 서사의 주체로 등장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마리안느 허쉬의 논의를 간략하게나마 검토해본다. 오이디푸스의 이야기 구조를 해체하는 실험적인 읽기를 시도했던 마리안느 허쉬는 오이디푸스가 왜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는가를 묻는 대신 어머니인 이오카스테가 왜 아들인 오이디푸스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마리안느 허쉬는 프로이트의 가족 로망스는 남성 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인 관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족 로망스가 수정적인 관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즉 모녀의 이야기로 작품의 기본 패러다임이 재구축될 때 어머니와 딸의 관계 및 모녀의 이야기 전승 과정이 "여성되기"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4]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된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을 매어 영원히 침묵했지만, 이오카스테에게 어떤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오이디푸스는 다른 작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오카스테가 끝내 발화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마리안느 허쉬는 이오카스테의 딸을 통해서라도 어머니의 이야기 즉 모녀서사는 구축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한국인 생모가 미국으로 입양된 딸들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로부터 시작되는 『피의 언어』는 어떻게 독해될 수 있을까?

---

3) 제인 정 트렌카, 324면.

4) Marianne Hirsch, *The Mother/Daughter Plot: Narrative, Psychoanalysis, Femin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p.1-39.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는 국가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미국의 백인 가정에 입양된 작가의 혼종적인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 민은경의 분석에 특별히 주목하게 된다.[5] 민은경은 국가 인종 간 입양아의 성비 차이를 '딸의 교환'이라는 개념으로 검토하고, 어머니를 거부하고 비하하며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여성 주체성에 내재된 이중 구속이 인종적 구속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과정에 착목해서 제인 정 트렌카의 자기서사를 다채롭게 해석한 바 있다. 민은경의 통찰에 따르면, 국가 간 인종 간 입양은 이민, 망명, 국외거주, 노동 이주, 결혼 이주 등과는 다른 형태의 디아스포라일 뿐만 아니라 입양아와 생모는 모두 상실감, 우울증, 소외감, 적대감 및 자기 증오, 자기 책망 등의 감정을 겪게 된다.[6] 그와 같은 민은경의

5) 이와 관련해서는 차민영,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에 나타난 초국가 입양 디아스포라」, 『현대영어영문학』 63(4), 현대영어영문학회, 2019, 269-289면, 김현숙, 「초국가적 입양과 탈경계적 정체성—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 『영어영문학』 57(1), 한국영어영문학회, 2011, 140-170면.

6) 낸시 라일리는 아동 유기와 입양 성별이 반영된 사회적 맥락을 아래의 연구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 Nancy E. Riley, "American adoptions of Chinese girls: The socio-political matrices of individual decis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0, 1997, pp.87-102.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은경의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 제인 정 트렌카의 회고록을 모녀서사의 관점으로 읽어 볼 수 있었음을 밝힌다. 이와 관련해서는 Eun Kyung Min, "The Daughter's Exchange in Jane Jeong Trenka's *The Language of Blood*", *Social Text* 94, 2008, pp.115-133. 딸의 교환 및 여성 거래에 관한 정신분석학 및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게일 루빈의 논문 「여성 거래-성의 '정치경제'에 관한 노트」와 「인신매매에 수반되는 문제-「여성 거래」 재고」를 참조. 이와 관련해서는 게일 루빈,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윤 옮김, 『일탈』, 현실문화, 2015, 99-183면. 게일 루빈은 여성을 선물로 교환하며 형성되는 친족 관계를 지적했고, 민은경은 루빈의 논의를 확장시켜 입양이라는 거래로 가족 간의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동시에 국가 간 인종 간 입양이 냉전 시대 권력자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Eleana Kim의 논의에서도 큰 시사점을 얻었다. Eleana Kim은 미국에서 입양아가 선택받은 아이로 재현되고 언급되었던 이유를 반공주의 강화라는 정치적인 맥락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Eleana Kim,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0, p.48. 인종 간 입양의 문제를 소수자 정체성과 디아스포라의 문제로 확장시키며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분석한 연구로는 Anne Anlin Cheng, *The melancholy of race: psychoanalysis, assimilation and hidden grief*,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3-168. 한편 데안 보샤이 리엠(Deann Borshay Liem)의 국가 간 입양에 관한 다큐멘터리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 2000)에서 1953년 한국전쟁 정전 협정 후 국가 재건 사업과 국제입양 문제를 연동시켜 논의했다. 국가 간 인종 간 입양이 가족 및 친족 관계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에 관한 더욱 크고 복잡한 공적인 제국주의 역사적 맥락으로 분석되어야 필요성에 관해서는 David L. Eng, "Transnational Adoption and Queer Diasporas," *Social Text* 76, 2003, pp.1-37.

분석과 주장에 동의하며, 이 글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어머니의 삶을 딸이 대신 글로 쓰는 모녀서사의 문학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회고하는 글을 쓰며 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자신을 입양해 키운 어머니 즉 생모와 양모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제인 정 트렌카는 어머니 찾기와 여성되기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전(前) 한국인이자 해외 입양인,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피의 언어』의 저자가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를 서사의 주체로 배치한 이유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서 제인 정 트렌카가 직접 이야기한 해외 입양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2. 양부모보다 고귀한 한국 어머니

제인 정 트렌카는 1972년 생후 6개월 무렵에 만으로 네 살 반인 언니와 함께 미국 미네소타 할로우의 루터교도 가정에 입양되었다. 할로우는 "백인 이성애자들이 극히 다수를 차지하는 동질적인 사회"였고, 구성원들은 할로우를 "선과 도덕, 원칙적이고 동질적인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최후의 보루"로 여길 정도로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었다.[7] 할로우의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 가정의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자 루터파 교회의 목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루터 사회복지회를 통해 한국인 자매를 입양하도록 적극 권유했다.[8] 피부색이 다른 외국 아이들을 입양하라는 권유를 받고 제인 정 트렌카의 양부모는 망설였지만, 목사로부터 신은 오직 인간의 영혼만을 본다는 설교를 들은 후 한국인 자매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인 정 트렌카는 양부모가 한국인 자매를 입양한 이유를 전혀 다르게 분석했다. "입양 사업에서 높이 쳐 주는, 미국 태생의 건강한 백인 아기를 입양하는 일"[9]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인 정 트렌카의 미국 부모는 '백인 남자아이'들을 원해 로버트와 찰스라는 이름까지 준비해두었지만, 목사로부터

7) 제인 정 트렌카, 31면.
8) 개인의 불행과 고통을 공동체 및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극복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로 받아들였던 마르틴 루터의 이념이 기독교의 이웃 사랑에서 출발했음을 고찰하며 루터파 공동체의 호혜적인 관계 지향성을 도상 이미지를 통해 분석한 연구로는 한유나, 「위로와 연대—이미지로 보는 16세기 독일 루터파 공동체의 이상」, 『학림』 49, 연세사학연구회, 2022, 49-84면 참조.
9) 제인 정 트렌카, 262면.

한국 여자아이 둘을 소개받으면서 오랜 희망을 포기했다. 그렇게 딸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버림받은 자매는 미국인 가정에 입양될 수 있었다.

양부모로부터 선택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인 정 트렌카는 실존적인 불안에 휩싸였다.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철이 든 여자아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따윈 하지 않는 아이와 교환될지도 몰라. 아니야.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10] 자기 자신이 교환 가능한 대상임을 떠올릴 때마다 제인 정 트렌카는 양부모에게 더욱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버림받지 않으려면 완벽한 미국 아이로 성장해야 했다.[11] 무엇보다 자신을 낳아준 지구 반대편의 한국 어머니에 관해서는 무조건 함구해야 했다. 집에서 입양과 한국은 금기어에 가까웠다. 제인 정 트렌카는 자신이 재갈을 물고 자랐다고 회고했다. "우리 자매는 한국에 대해서라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사랑만큼 두텁고 꿰뚫을 수 있는 재갈을 우리는 각자 입에 물고 살았던 것이다."[12] 제인 정 트렌카 자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스웨덴으로 입양된 리사 울림 세블룸의 자기서사에도 "우리는 침묵하는 방식으로 슬퍼했다. 양부모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 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입되는 신화들을 스스로 익혀갔다. 이렇게 원래 가족과 나 자신은 우리 이야기에서 사라져 갔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내 영혼에는 구멍이 생겼다."[13]라는 대목이 나온다.

생모의 존재를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제인 정 트렌카는 한국의 어머니가 미국의 딸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영어를 모르는 한국의 어머니에게 제인 정 트렌카는 무작정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 편지들은 나 혼자 몰래 슬픔에 잠기는 방식, 상상 속의 어머니에게 울며 매달리는 나만의 은밀한 방식이었다. 왜냐하면 미국 부모님은 내 마음 속 진실을 들으려고도,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14] 아무리 기다려도 한국에서

10) 제인 정 트렌카, 36면.
11) Eun Kyung Min, *Ibid*, p.127.
12) 제인 정 트렌카, 44면.
13) 리사 울림 세블룸, 이유진 옮김, 『나는 누구입니까』, 산하, 2018, 12면. 파양, 학대, 추방, 자살로 내몰리는 국제입양인의 현실 및 대한민국 입양법에 관해서는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아이들 파는 나라—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오월의봄, 2019.
14) 제인 정 트렌카, 58면.

답장이 오지 않자, 제인 정 트렌카는 공주인 어머니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딸들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설화에 이끌리기도 했다.

> 나는 어린아이로서 납득할 만 한 나만의 이야기를 꾸며댔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공주였다. 그런데 용과 관련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 공주는 자기 아이들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는 머나먼 탑 속에 갇힌 공주의 그림을 수없이 그렸다. 물론 공주는 항상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생각했다.
>
> 훗날, 내 어린 시절의 이런 몽상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공주는 아니었지만, 양반가문에서 태어났다. 내 조상은 한국의 계급사회에서 전략결혼, 재산상속, 덕행, 과거시험 등을 적절히 잘 이용하여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랐다.
>
> "당신의 외조부님께서는 소가 아주 많았답니다."라고 통역자들이 전해주었다. 내 조상은 중부지방에서 안락한 전원생활을 누렸다. 등이 휘는 고된 농사일은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문인 양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다.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는 삶, 자연을 벗삼아 마음껏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시・서・화를 즐기며 사는 것이 양반에게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였다.[15]

프로이드는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모를 부정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부모로 대체하고자 하는 신경증을 가족 로망스라는 개념으로 분석했는데, 제인 정 트렌카는 자신과 언니를 입양해 키우는 미국의 양부모보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훨씬 고귀하다는 믿음을 무의식적으로 가지며 수정적인(revisionary) 관계를 설정했다.[16] 루터교회의 목사가 한국인 자매 입양을 망설이는 미국 양부모에게 "흔히 이런 경우 엄마가 매춘여성이거나 십대 미혼모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물론이고 한국의 대중문화에서조차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낸 한국인 생모들은 전쟁미망인, 노동계급, 10대 미성년, 미혼모, 성노동자, 성폭행 피해자, 극빈층 등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았다.[17]

---

15) 제인 정 트렌카, 61-62면.

16) 프로이드의 가족 로망스에 관해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종대 옮김, 「신경증 환자의 가족 소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20, 177-184면 참조.

17) Eleana Kim, "Wedding Citizenship And Culture: Korean Adoptees and the Global Family of Korea," *Social Text* 74, 2003, pp.57-91,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반면, 제인 정 트렌카는 어머니의 조상과 자신의 혈통을 추적하며 개인의 불행이 한국의 역사와 인습에서 기인했음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우리가 유명한 시인이나 학자 집안일까? 철학자나 역사가 집안일까? 우리 집안의 가계는 역사 속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조부모님은 친절한 분들이었을까?
> 우리는 유교의 덕행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의 가부장적 전통은 우리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로 굶주리고 있는데도 그런 여인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던가? 한량인 사내들로 대를 이어 내려온, 우리의 나무랄 데 없는 혈통에 대해 신경 써서 뭐하겠나? 우리의 왕후가 백여 년 전에 칼에 찔려 죽었고 현대의 한국은 징병제로 무장하고 모두가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민주주의 국가인 마당에, 몰락한 양반가문과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운 관계인지 논한들 뭐하겠나? 세 아이를 잃고 말았던 한 여인에 대해 세상은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누군들 죽은 병사 한 사람을 기억할까? 대체, 미국인이, 진주만 공격 이전에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서 일으킨 침략 전쟁에 관심이나 있을까? 심지어 일본군이 15만여 명의 중국인을 살상한 난징 사건조차 미국 대중의 의식 속에서 거의 잊혔는데 말이다.
>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비록 산산조각 나긴 했지만 역사에 살아남은 위대한 한 가족, 그 가족의 작은 파편 하나로서 존재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날 내 아이들은 머나먼 한 나라와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조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고, 그들이 한국과 맺을 관계는 나보다 훨씬 더 희미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늙어 할머니가 될 즈음, 내 가족의 이야기는 이미 생을 마감한 자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로 사라지리라.[18]

어머니가 양반 가문 출신임을 확인한 제인 정 트렌카는 어머니의 삶이 몰락

2010. 또한 유럽 국가 가운데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아동 입양 인구가 가장 많은 프랑스 한인입양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는 문지영, 「1970-1980년대 프랑스에 입양된 한인여성의 입양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한국뿌리(Racines Coréennes)〉의 입양 증언을 중심으로」, 『사총』 104,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9, 145-176면. 한편 토비아스 휘비네트는 한국대중문화에서 입양인과 생모가 재현되는 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특히 버림받은 자녀가 자신들을 버린 생모를 위로하는 '고아가 된 한국'을 위로하는 입양인의 양상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토비아스 휘비네트(이삼돌), 뿌리의집 옮김,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 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소나무, 2008. 국가 간 입양과 인종 간 입양의 한국적 기원을 추적하며 국가 간 입양을 한미관계를 비롯한 냉전 질서 및 경제 개발 구도의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아리사 H. 오, 이은진 옮김,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해외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집, 2019.

18) 제인 정 트렌카, 64-65면.

하게 된 과정을 역사적인 맥락으로 분석했다.[19] 제인 정 트렌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도 좋다는 생모의 편지를 받고 처음으로 생모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지만, 언어가 달라 서로 아무 말도 나눌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부르는 '경아'라는 한국 이름을 들으며 제인 정 트렌카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한다. "한국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그 밤의 기억은 자기 몸을 이탈한 자의 시점으로 기록된다. 마치 내가 이 세계의 천장에 핀으로 꽂힌 채 우리 집 지붕을 통해 나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다."[20] 전화 통화 이후 6년 동안 모녀는 편지를 교환했고, 1992년에 어머니는 딸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생모는 딸이 미국에서 상상했던 공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전쟁미망인으로 혼자 아들과 시어머니를 부양했던 어머니는 재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다 아들을 둔 채로 집을 나와야 했다. 재혼한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 폭력적인 의처증 환자였다. 남편이 데려온 딸들을 키우며 봇짐장수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던 어머니는 재혼 후 딸 둘을 낳았는데 아들을 원했던 제인 정 트렌카의 생부는 새로 태어난 딸들을 자기 딸이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당시의 상황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엄마는 자기가 나를 계속 키웠다면 내가 죽었거나 거지가 되었을 거라고 했다. 엄마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가 내 머리를 때려

19) 앞서 언급했던 프로이트의 가족소설 개념에서 출발해 마르트 로베르는 어린아이에게는 의식적이고 정상적인 어른에게는 무의식적이며 신경증 환자에게 집요하게 나타나는 사생아와 업둥이의 세계관을 통해 문학 작품을 분석했다. 마르트 로베르는 소설의 출발점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꾸며낸 이야기의 출발점을 업둥이와 사생아의 거짓말로 분류했다. 업둥이 즉 입양아는 자기의 부모가 절대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평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진짜 부모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자신의 진짜 부모가 언젠가는 자신의 신분을 회복시켜줄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꾸미게 되며, 이에 반해 사생아는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지만 아버지는 현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인하는 단계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었다. 마르트 로베르는 아이가 부모를 양부모로 인식할 때, 양부모는 "자기를 받아들여서 양육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그들과 어떤 공통점도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고 결론짓는다."고 주장했는데, 제인 정 트렌카의 자기서사에서는 그와 같은 특징이 역행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르트 로베르, 김치수・이윤옥 옮김,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38-49면 참조.

20) 제인 정 트렌카, 92면.

시퍼렇게 멍들게 했고 나를 창밖으로 던지기도 했으며, 엄마는 그를 피해 집을 나와 길거리에서 잔 적도 있었다. 그런 가정에서 갓난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나?"[21] 그렇게 폭력적인 남편이 무서워 피해 다니면서도 어머니는 실체도 없는 '양반 가문'의 딸이라는 관념에 얽매여 이혼을 하지 못했다. 두 딸의 미국 입양을 추진한 것은 생부였다. 어머니는 딸들을 살리기 위해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제인 정 트렌카는 어머니의 불행과 고통이 양반 가문인 외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양반 가문에 남아 있었던 가부장제의 폐습이 어머니의 삶을 망쳤고,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양반 가문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한 채 평생 딸, 어머니, 부인, 며느리로서의 의무감에 시달렸던 한국 여성의 삶을 조명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재산과 학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물려받지 못한 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며 가난, 폭력, 추방의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트라우마는 세대를 거쳐 딸에게 전이되었다. 제인 정 트렌카는 생모를 원망하거나 비난할 수조차 없었다. 제인 정 트렌카는 『피의 언어』에서 1992년에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영어로 써 미국으로 보냈던 편지를 자신의 언어로 다시 한 번 옮겨 쓰는 것으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 내 나이 이제 환갑이 되었구나. 이 엄마가 너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참으로 부끄럽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 꿈은 아주 행복했는데 현실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지. 내 살아온 이야기를 너희한테 다 들려주고 싶지만 한 많은 모진 인생을 너희가 어찌 이해하겠니. 엄마 노릇 못한 이 부끄러움을 다 어찌할까. 영영 나 자신이 원망스러워 울고 싶구나. 너희가 괜찮다면 살아생전에 꼭 만나고 싶다. 사랑스러운 너희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내 소원은 그것뿐이란다.[22]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1995년에 제인 정 트렌카 모녀가 서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는 통역사를 통해 딸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정말 나쁜 엄마이고, 용서를 부탁한다."고

21) 제인 정 트렌카, 92-93면.
22) 제인 정 트렌카, 16-17면.

거듭 말했고, 딸은 "엄마가 왜 우릴 떠나보내야 했는지 다 이해해요. 잘 하셨어요. 당신은 좋은 어머니예요. 용서를 구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답했다.[23] 하지만, 제인 정 트렌카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피의 언어』가 처음 출간되고도 약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12년에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거의 20년 전 내가 서울의 소피텔 엠버서더에서 친엄마와 이런 의식을 거행할 때, 엄마는 갑자기 죄의식을 느낀다며 눈물로 온 호텔방을 채우셨다.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의식을 갖지 마세요. 엄마는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된 거예요. 전 행복해요."뿐이었다. 결국 엄마의 한은 호텔 한 구석구석에 가득 차올랐고 딸인 나는 이역만리에서 자라며 겪은 삶을 제대로 털어놓을 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가족 결별과 인종 간 입양이 내게 무슨 짓을 당하게 했는지 진실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성폭력, 잔인한 인종 차별, 자살 시도, 중증 우울증에 대한 고백 대신 나는 엄마의 희망을 짓밟지 않을 거짓말을 해야 했다."[24] 모녀는 서울에서 극적으로 상봉했지만, 딸은 어머니에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을 끝내 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라는 이질적인 언어 차이에 있지 않았다. 화해를 위해 '몸부림'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이다가 양쪽 모두 서로에게 실망하고 다시 낯선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치며 더욱 우울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인 정 트렌카는 어머니를 위로할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어머니를 위로해야 했다. 어머니가 딸의 진실을 알게 되면 딸을 입양 보낸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딸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딸에게 한국에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끊임

23) 제인 정 트렌카, 148면. 데리다는 용서의 본질은 바로 시간, 과거에 대한 반박 불가능성과 수정 불가능성을 내포한 시간의 존재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크 데리다, 배지선 옮김, 『용서하다』, 이숲, 2019, 41면.

24) 제인 정 트렌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라」, 제인 정 트렌카・줄리아 치니에르 오페러・선영 신 엮음, 『인종 간 입양의 사회학—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뿌리의집, 2012, 552-553면.

없이 말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엄마는 스스로 속죄하는 한편, 현실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진정 꿈꾸는 자화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느 날, 마술처럼, 자신이 꿈꾸던 모습으로 변해 있기를, 그리하여 이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삶을 스스로 정복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 게 아닐까?”[25] 하지만 놀랍게도 제인 정 트렌카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어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엄마의 딸로 바뀌어 가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어머니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행위로 치부했던 이야기가 딸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다.

3. 엄마의 몸이 내 몸으로 변해가는 시간

제인 정 트렌카는 『피의 언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머니에게 불행과 고통을 전가한 실체였음을 고발했다. “아들이 딸보다 귀중한 나라, 여자들이 어린 자식들을 업고 다니듯 무거운 의무의 집을 업고 다니다가 나이가 들면 영원히 허리가 굽어 눈을 땅에다 박고 사는 이 나라에서”[26] 여성은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삶의 뿌리가 뽑혀 나가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어머니는 제인 정 트렌카 생부의 폭력을 딸에게 뒤늦게나마 증언했다. 제인 정 트렌카와 언니가 미국으로 입양된 이후로도 남겨진 가족들은 아버지가 던진 맥주병에 맞아 자주 상처를 입었다. 어머니는 남은 딸들과 수레 밑에서 잠을 자면서 15년간 서울의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녔지만, 아버지는 어김없이 가족들을 쫓아왔다. 외삼촌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아버지는 감옥에 다녀와서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토록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면서도 아들 얻기만을 끝까지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제인 정 트렌카를 입양 보낸 후에 딸이 태어나자 아버지는 딸에게 남자아이 이름을 지었다. 가부장제 사회의 폐해를 온몸으로 겪은 어머니의 삶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

25) 제인 정 트렌카, 149면.
26) 제인 정 트렌카, 151면.

제인 정 트렌카는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비행기 안에서 제인 정 트렌카는 한국에서 배우고 깨달은 세 가지 덕목들을 되새겼다. "스스로 위로하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신뢰하라. 나쁘게 대하는 남자들에게 돌아가지 말라."[27] 미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다짐을 실천하기도 전에 제인 정 트렌카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뇌종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급격히 위독해진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제인 정 트렌카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다. 점차 의식이 흐릿해지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딸은 '처음으로 엄마의 몸이 내 몸으로 변해가는 시간'[28]을 경험했다. 어머니를 간병하며 딸은 어머니의 몸과 자신의 몸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 엄마, 이제 나는 당신의 몸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벌거벗은 몸이 나에게는 전혀 충격이 아니었고 당신에게는 창피한 일이 아니었지요. 당신이 엄마로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난 그제야 처음 알게 되었어요. 내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내가 당신의 몸과 당신의 심장을 물려받은 딸이라는 것을요. 설령 글로 당신을 되살리는 데 실패하더라도, 내 속에 흐르는 '피의 언어'로 나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29]

간병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제인 정 트렌카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 참석이 어려운 형편이었던 딸은 대신 미국에서 추도식을 준비했다. 자신을 낳아준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에 자신을 길러준 미국 어머니가 와 주길 원했다. 추도식을 통해 미국 어머니와의 오랜 불화가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심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 어머니는 추도식에 참석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통보했다. 오히려 생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기리는 딸에게 미국 부모님이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제인 정 트렌카는 미국 어머니의 심경을 『피의 언어』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엄마의 마음 속에는 내가 어디 다른 곳에서 온 자식이 아니다. 내게 친어머니는 없다. 없다. 없는 것이다."[30] "왜 내가 한국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해야

27) 제인 정 트렌카, 232면.
28) 제인 정 트렌카, 209면.
29) 제인 정 트렌카, 204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배신감을 느낀다."[31] 미국 어머니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딸은 참석이 어렵다고 핑계거리를 대는 미국 어머니로부터 한국 어머니의 죽음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말았다. 딸은 결국 "빌어먹을, 엄마한테 자식들을 준 여자를 위해 올 수도 없단 말이에요?"[32]라고 미국 어머니에게 응수했고, 그렇게 생모의 죽음을 계기로 모녀의 갈등은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고 말았다. 성실한 모범생으로 잘 자란 딸이 욕을 하며 분노하자 미국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관계를 단절한다. 제인 정 트렌카는 돌연 두 명의 어머니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추도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제인 정 트렌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미국의 딸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참석자들 앞에서 읽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지 못했던 어머니를 대신해 딸이 어머니가 되는 행위로 어머니를 추도한 것이었다. 한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며 어머니와 딸을 마지막까지 이어주었던 것은 '편지'였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수도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을 수도 없게 된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글로 쓰기 시작했다. 마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부터 애도 일기를 썼던 롤랑 바르트처럼 제인 정 트렌카도 글쓰기로 어머니와의 이별을 지연시키고 싶었다.[33]

제인 정 트렌카는 왜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는 어머니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엄마, 할 수만 있다면 내 의지와 글로 당신을 소생시켜드리고 싶어요. 물과 하늘과 공기처럼 순수하고 상쾌하고 신선한 글로 말이에요. (……) 그러나 엄마, 당신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가 우리가 가장 오래 함께 있었던 시간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임종의 글로 재창조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가슴 아파요. 엄마, 내가 그만 슬퍼하고 이제 당신을 놔주길 바란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행여 서툴고 추한 글이 될까 두렵지만, 글로 당신의 형상을 빚으려 합니다. 글로 당신을 소생시키려 합니다.[34] 한국에서 어머니와 만났을 때,

30) 제인 정 트렌카, 243면.
31) 제인 정 트렌카, 257면.
32) 제인 정 트렌카, 244면.
33) 롤랑 바르트, 김진영 옮김, 『애도 일기』, 걷는나무, 2018 참조.

딸은 어머니의 말을 모두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했다. 어머니의 긴 이야기를 통역사들은 언제나 짧게 요약해서 딸에게 전달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딸은 생모의 대화를 다른 방식으로 이어 나가고자 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회고록과 자전적 소설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의 언어인 한국어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인 영어로 어머니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삶과 죽음을 글로 쓰며 제인 정 트렌카는 또 한 명의 어머니와 자신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에서 생모가 세상을 떠나자 비로소 미국에서 외할머니를 잃은 양모의 슬픔을 뒤늦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4. 피의 언어로 쓴 편지

제인 정 트렌카는 자신을 입양해 키웠고 오랜 세월 긴장과 애증의 관계를 형성했던 미국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어머니를 잃은 두 여자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며, 제인 정 트렌카는 자신의 슬픔을 비로소 미국 어머니에게 건넬 수 있었다.

> "엄마, 난 당신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코 당신의 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결코 복숭아빛 피부나 금발을 갖지 못할 것이고, 결코 푸른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 둘 다 앞을 보지 못한다면 서로를 받아들 수 있을까요? 만져봄으로써 서로를 알게 될까요? 여기를 만져주세요, 엄마. 여기, 내가 미안해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는 곳을요. (…) 엄마. 만약 내가 두려워하며, 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면, 다시 나를 구해줄래요?"[35]

제인 정 트렌카는 딸과 전혀 다른 몸을 가진 미국 어머니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한국인 경아의 관점에서 미국인 제인에게 쓴 편지에서도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자기 자신을 "오직 너만이 보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복"[36]을 누리고 있다고

34) 제인 정 트렌카, 203면.
35) 제인 정 트렌카, 296면.
36) 제인 정 트렌카, 177면.

이야기하며 또 다른 자아에게 해외 입양인의 삶을 설명했다. 그렇게 미국인 제인의 존재가 한국인 경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서도 경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인 양부모는 그녀를 제인으로만 살아가도록 키웠지만, 경아는 소멸될 수 없는 존재로 제인의 몸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몸 안에 흐르는 '피의 언어'로 어머니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제인의 몸 안에서 경아는 '피의 언어'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이처럼 미국인의 정체성과 아시아 여성으로서의 인종적 우울증을 내면화한 제인 정 트렌카는 한국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애도의 글쓰기를 수행하며 어머니 찾기와 여성되기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게 되었다.[37]

제인 정 트렌카라는 이름을 쓰기 전까지 정경아와 제인 마리 브라우어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지만, 두 여성은 한 사람의 몸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정경아, 주민등록등본에는 1972년 음력 1월 24일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 세상의 반을 돌아가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제인 마리 브라우어.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밟은 1972년 9월 26일에 다시 태어났다. 미네소타 주 출생증명서에는 1972년 3월 8일생으로 기록되어 있다."[38] 공식 서류에 기입되는 내용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제인 정 트렌카는 인간의 몸과 이야기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옹호했다. 사람들로부터 조상에 대해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그리고 그들이 "누구든지 자기가 왕족이나 재력가 집안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잖아. 넌 무슨 문서랄까, 뭐 그런 증거물이라도 있니?"라고 할 때마다 제인 정 트렌카는 호적이라는 문서보다 "한국 어머니가 윗대에 대해 말해준 것들과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로는 자매들이 이어서 전해주는 것들"을 훨씬 더 신뢰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의 힘을 믿으면서도 제인 정 트렌카는 어머니 대신 어머니의 삶을 글로 쓰는 과정을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37) 지그문트 프로이드, 윤희기・박찬부 옮김,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12, 239-265면, Anne Anlin Cheng, *The melancholy of race: psychoanalysis, assimilation and hidden grief*,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24-29.
38) 제인 정 트렌카, 23면.

『피의 언어』를 마무리하며 제인 정 트렌카는 돌아가신 한국 어머니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간청했다.

> "사랑하는 엄마, 이 책을 쓴 걸 용서하세요. 결코 우리 가족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랍니다. 그저 제가 익숙한 미국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공경하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에 드릴 꼭 알맞은 말을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점을 너그러이 봐주신다면, 당신께 드리는 작은 선물로 이 이야기를 받아주세요."[39]

제인 정 트렌카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쓰기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삶에 글쓰기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어머니를 대신해 딸이 어머니가 되어 발화한 것이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내부의 이방인(outsider within)'으로 규정한 제인 정 트렌카는 한국 사회에서 버림받은 혹은 한국 사회가 유기하고 판매한 해외입양인들의 삶을 공론화하는 작업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제인 정 트렌카의 자전적 글쓰기는 점차 사회 저항적이고 실천적인 글쓰기로 확장되어갔다.[40] 2006년에 『인종 간 입양의 사회학』을 미국에서 발간하고 1년 후인 2007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을 만들어 활동가의 삶을 시작하며, 국가 간 입양, 인종 간 입양의 문제는 개인의 기구한 사연으로 치부될 수 없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규명했다.[41]

제인 정 트렌카는 자전적 글쓰기로 어머니 찾기와 여성되기의 의미를 분석하며 미국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 미국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트라우마가 해외 입양이라는 모순적인 제도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2013년에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덧없는 환영들(2009)』에서 제인

39) 제인 정 트렌카, 323면.

40) 제인 정 트렌카는 국제 간 입양인들의 증언집을 발간하면서 흑인 페미니스트들의 통찰력을 '내부의 이방인'으로 규정한 패트리샤 힐 콜린스의 개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패트리샤 힐 콜린스, 박미선・주해연 옮김, 『흑인 페미니즘 사상—지식, 의식 그리고 힘기르기의 정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9 참조.

41) 제인 정 트렌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라」, 『인종 간 입양의 사회학-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들이 목소리』, 뿌리의집, 2012, 558면.

정 트렌카는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양부모를 만났다. 처음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엄마와 자매들을 만났다. 두 번째로 한국에 돌아와서 오빠를 만났다. 세 번째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한국 엄마가 돌아가시려던 참이었다. 네 번째로 한국에 돌아온 것은 갓 결혼하고서였다. 다섯 번째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난 내 시스템 안의 한국을 불태워버리고 다시 미국인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여섯 번째 한국에 왔을 때는 갓 이혼하고서였다.”[42] 미국에서 제인의 정체성으로 살 수 없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경아의 정체성으로만 지낼 수 없었던 제인 정 트렌카는 한국에 돌아온 해외 입양인의 존재를 자전적 글쓰기로 가시화하고 있다.[43]

이처럼 제인 정 트렌카의 자전적 글쓰기는 한국문학의 조건 혹은 가능성을 새롭게 성찰하게 한다. 작가의 희망처럼 해외 입양인의 자기 서사가 ‘한국인의 집단적 경험의 일부’로 읽혀질 때, 한국문학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제인 정 트렌카가 스스로를 전(前) 한국인으로 소개할 때, 전과 후의 기준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세상의 반을 돌아가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이다.’는 선언처럼, 제인 정 트렌카의 작품이 미국에서 영어로 읽힐 때와 한국에서 한국어로 읽힐 때 제인 정 트렌카의 자기서사는 각각 다른 텍스트로 간주되어야 할까? 물론 제인 정 트렌카의 글쓰기에만 국한된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국가 간 입양과 인종 간 입양으로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성장한 해외 입양인들의 자기서사를 비교 분석하며, 한국문학의 경계에 관한 모색을 추후의 과제로 다루고자 한다.

42) 제인 정 트렌카, 『덧없는 환영들』, 창비, 2013, 13면,
43) 제인 정 트렌카, 「한국에 돌아온 해외 입양인의 소소한 고백 세 가지」, 『나는 왜 그 간단한 고백 하나 제대로 못하고』, 도마뱀출판사, 2021, 122-126면 참조.

▮ 참고문헌

제인 정 트렌카, 송재평 옮김, 『피의 언어』, 와이겔리, 2005.
제인 정 트렌카 · 줄리아 치니에르 오페러 · 선영 신 엮음, 『인종 간 입양의 사회학—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뿌리의집, 2012.
제인 정 트렌카, 이일수 옮김, 『덧없는 환영들』, 창비, 2013.
전홍기혜 · 이경은 · 제인 정 트렌카, 『아이들 파는 나라—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오월의봄, 2019.
제인 정 트렌카, 「한국에 돌아온 해외 입양인의 소소한 고백 세 가지」, 『나는 왜 그 간단한 고백 하나 제대로 못하고』, 도마뱀출판사, 2021.

김현숙, 「초국가적 입양과 탈경계적 정체성—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 『영어영문학』 57(1), 한국영어영문학회, 2011.
문지영, 「1970-1980년대 프랑스에 입양된 한인여성의 입양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한국뿌리(Racines Coréennes)〉의 입양 증언을 중심으로」, 『사총』 104, 2019.
차민영,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에 나타난 초국가 입양 디아스포라」, 『현대영어영문학』 63(4), 현대영어영문학회, 2019.
한유나, 「위로와 연대—이미지로 보는 16세기 독일 루터파 공동체의 이상」, 『학림』 49, 연세사학연구회, 2022.

게일 루빈, 신혜수 · 임옥희 · 조혜영 · 허윤 옮김, 『일탈』, 현실문화, 2015.
롤랑 바르트, 김진영 옮김, 『애도 일기』, 걷는나무, 2018.
리사 울림 셰블룸, 이유진 옮김, 『나는 누구입니까』, 산하, 2018.
마르트 로베르, 김치수 · 이윤옥 옮김,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아리사 H. 오, 이은진 옮김,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해외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집, 2019.
자크 데리다, 배지선 옮김, 『용서하다』, 이숲, 2019.
장 아메리, 안미현 옮김, 『죄와 속죄의 저편—정복당한 사람이 극복을 위한 시도』, 길, 2012.
지그문트 프로이드, 윤희기 · 박찬부 옮김,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12.
_____, 박종대 옮김, 「신경증 환자의 가족 소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20,
패트리샤 힐 콜린스, 박미선 · 주해연 옮김, 『흑인 페미니즘 사상—지식, 의식 그리고 힘기르기의 정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9.
토비아스 휘비네트(이삼돌), 뿌리의집 옮김,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 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소나무, 2008.

Anne Anlin Cheng, *The melancholy of race: psychoanalysis, assimilation and hidden grief*,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David L. Eng, "Transnational Adoption and Queer Diasporas," *Social Text* 76, 2003.

Eleana Kim,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0.

Eun Kyung Min, "The Daughter's Exchange in Jane Jeong Trenka's *The Language of Blood*", *Social Text* 94, 2008.

Marianne Hirsch, *The Mother/Daughter Plot: Narrative, Psychoanalysis, Femin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Nancy E. Riley, "American adoptions of Chinese girls: The socio-political matrices of individual decis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0, 1997.

【Abstract】

Adoptive Mother and Birth Mother: Jane Jeong Trenka's Self-Narrative and Reconfiguring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Jang, Young-eun*

In 2003, Jane Jeong Trenka published *The Language of Blood*, a memoir and autobiographical novel about her life as an interracial adoptee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article, I analyze Jane Jeong Trenka's self-narrative as a process of motherhood and becoming-woman, noting that Jane Jeong Trenka, who was born in South Korea and adopted by a white family in Minnesota when she was about six months old, presents both her Korean birth mother and her American adoptive mother as narrative subjects in *The Language of Blood*. Jane Jeong Trenka stumbled upon letters written by her Korean mother to her daughters in the United States and attempted to communicate with her Korean mother by writing to her birth mother, who did not speak English. In her diary-like letters, Jane Jeong Trenka established a revisionary relationship, subconsciously believing that the mother who gave birth to her was far more noble than the American adoptive parents who raised her and her sister. After meeting her birth mother in Korea as an adult, Jane Jeong Trenka confirms that birth mother's family was originally from the *Yangban*, only to discover that the patriarchy that remained in the *Yangban* was the biggest factor in her mother's ruined life. Jane Jeong Trenka is unable to open up about the sexual violence, racism, suicide attempts, and depression she experienced in the United States, but as she listens to her mother's story, Jane Jeong Trenka gradually comes to empathize with her birth mother's pain. After reuniting with her estranged daughters, her mother became critically ill with a brain tumor, and as Jane Jeong Trenka cared for her mother, she came to accept her mother's body and life as part of her own. As she mourned her mother's death, she wrote about her mother's life as a tribute to a woman who had never had a voice in Korean society. At the same time, she also wrote to her American mother, with whom she had adopted and raised her, and with whom she had a long-standing tense and loving relationship, conveying her feelings of grief and pain to her mother

* Visiting Professor, SungKyunKwan Univ.

in a different body. Faced with the difficulties of understanding both her birth and adoptive mothers, Jane Jeong Trenka turned to resistant writing to place the issue of international adoption on the social agenda. Jane Jeong Trenka's autobiographical writings reveal the literary implications and political possibilities of mother-daughter narratives.

Keywords: Jane Jeong Trenka, *The Language of Blood,* international adoption, interracial adoption, self-narrative, mother-daughter narrative.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0.